

특 집 |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 도서관은 불온한 상상력의 놀이터가 되어야

### 들어가면서

도서관. 나 같이 공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다소(?) 목소리 크고 산만하고 어수선한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그 세 글자만으로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아주 가끔씩 “삶의 지혜와 문화적 감수성을 어린 시절 도서관과 미술관에서 배웠다”는 풍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다 못해 불만스런 한숨이 터져 나온다. “여기가 무슨 프랑스로 아니고...” 나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도서관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반바지 입었다고 내쫓기고, 슬리퍼 신었다고 구박받았던 “강요된 학습과 위압적인 훈육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일 뿐이다.

그렇다. 아직까지도 도서관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친근한 공간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 도서관의 시설이 좋아지고, 도서관에 따라 그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우리 주위의 수많은 도서관은 “지식과 교육의 제도적 권력질서와 계몽주의”로 가득 찬 부담스런 공간임에 분명하다.

국가는 도서관을 “공공문화기반시설” 또는 “생활문화친화시설”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현재 도서관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공공성”은 “고리타분함”의 다른 표현이며, “생활친화”는 “초라함”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삶의 일상에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풍족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도서관의 “공공성”과 “친화성”을 이야기



이 원 재\*

\*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화운동가, redgang@jinbo.net

하는 것이라면, 아직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 도서관 : 정보의 교차로

나는 도서관이 “정보의 교차로”라고 생각한다. 아니 투덜거린다. 이러한 투덜거림은 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은 “도서”가 아니라 도서에 내재된 “정보”라는 역설에서 시작된다. 물론 여기서 “정보”는 정보화, 디지털화가 강요하는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의미한다.(정보화, 디지털화는 정보의 내재적, 사회적 의미의 일부를 지칭할 뿐이다.)

사실 도서관은 “도서”라는 형식 이전에 정보의 사회적 생산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매개, 과정, 사이”로서의 공간이다. 그것이 도서관의 존재 이유이자 사회적 의미이다.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도서관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이유이다.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보유는 것, 그 구입비를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 도서관을 기술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화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도서 관련 산업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의 사회적 생산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이제 도서라는 형식에 대한 더 많은 상상력과 실험이 필요할 때이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정보의 교차로이자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영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문화콘텐츠, 창작자들의 공공 네트워크로 도서관은 다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 도서관 : 불온한 상상력의 놀이터

도서관은 “불온한 상상력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을 “정보의 교차로”로 생각하는 것이 도서관을 둘러싸고 떠도는 “도서” 중심의 환원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태도라면, 나는 도서관을 둘러싼 “지식과 교육의 과도한 계몽주의와 엄숙주의” 역시 해체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은 “착한 아이를 위한 위인전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불온한 상상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놀이의 공간”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물론 여기서 “불온”이란 정치적 비판 의식만이 아니라 문화, 경제, 정치 모두에 있어 사회적 질서와 시대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가로지를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지칭한다.

불온한 상상력의 놀이터로서 도서관은 과거의 훈육적이고 강요된 지식의 전달과 학습이 아닌 문화적 감수성과 창조성에 대한 실천적 체험과 자기 개발을 모색한다. 도서관이 정보의 교차로가 되는 것이 “도서”에 내재된 기존의 형식과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가로지르는 것이라면, 불온한 놀이터가 되는 것은 “도서관이 아닌”(적어도 지금까지는 “도서관에 없던”) 새로운 형식과 프로그램을 대안적으로 상상하는 과정이다. 도서관은 불온한 놀이터가 됨으로써 “착하지만 가짜인 국가의 문화공간”에서 “빼박하지만 실재하는 삶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 나오면서

도서관이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불온한 상상력이 도서관에 접속되었을 때, 도서관은 비로소 “입시와 취업을 위한 값싼 독서실”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투털거림, 시비걸기, 상상하기가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도서관은 국가의 제도적 시설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 공간으로, 나아가 대안적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나는 도서관을 바꾸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강요된 경제우월주의와 임금노동사회의 환경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현재의 도서관을 비판하는 것, 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 그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 그 도서관 안에서 자유롭게 즐겁고 불온한 상상을 하는 것... 내가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㉞